

# “단속해도 그만”… 제주 도심 불법 현수막 난립

매년 수만건 철거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1% 미만  
가로수 사이 빼빼이 설치… 높이 규정도 안 지켜  
제주시, 9~20일 불법 현수막 특별지도·점검 실시

설 명절과 6·3지방선거를 앞두고  
제주 지역 도심 곳곳에 불법 정당  
및 일반 광고 현수막이 난립하고  
있다.

하지만 불법 현수막 철거 건수  
대비 과태료 부과는 전체 건수의 1  
%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 
났다.

9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 
철거된 불법 현수막은 2023년 5만  
2728건, 2024년 6만5918건, 2025년  
6만3138건 등이다.

이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2023

년 39건(1121만5000원), 2024년 250  
건(3189만원), 2025년 278건  
(4687만2000원)에 불과하다. 각각  
전체 철거 현수막 대비 0.4%, 0.4%,  
0.1%에 그치는 수준이다.

이날 오전 제주시 연동과 노형  
동, 이호동, 아라동 등을 확인한 결과  
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 현  
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. 설  
명절 인사를 전하는 정당 현수막부  
터 아파트·주택 분양을 홍보하는  
광고 현수막까지 다양했다.

횡단보도 주변 10m 이내에 현

수막을 설치할 시 보행자의 시야  
를 가리지 않기 위해 최소 2.5m보  
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. 현수막  
이 낮게 설치될 경우 키가 작은  
어린이 등은 도로 상황을 파악하  
지 못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 
때문이다.

하지만 이날 발견된 불법 현수막  
대부분이 높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 
채 횡단보도 인근에 마구잡이로 설  
치돼 있었다.

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해 교  
차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,  
아라동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는  
높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동일한  
내용의 현수막이 3개 이상 게시돼  
있었다.

또 현수막 설치가 불가한 가로수

사이로 현수막들이 3~4개씩 설치된  
사례도 있었다.

이처럼 불법 현수막을 막는 법이  
존재하지만 통상적으로 용인하는  
분위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 난립이  
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.

제주시 관계자는 “시민들이 쾌적  
한 환경을 위해 단속과 정비를 철  
저히 하겠다”며 “공직선거법에 따라  
지방선거 관련 불법 현수막은  
특히 엄중 처벌하는 등 조치해 나  
가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 제주시는 설 연휴와 지방선  
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게시가  
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일  
부터 20일까지 불법 현수막 특별점  
검을 실시한다.

양유리기자 glassy38@ihalla.com

## 안심 무인택배함 추가 설치 도, 24일까지 운영자 모집

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생활 편의  
를 위해 운영 중인 ‘안심 무인택배  
함’을 2곳 더 설치할 계획이다. 이  
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운영 기관·  
단체를 모집한다.

9일 제주도에 따르면 안심 무인  
택배함은 공동주택, 주민센터 등  
생활권 내에 설치돼 도민들이 시간  
과 장소 제약 없이 택배를 수령할  
수 있도록 돋는 시설이다. 2014년 4  
월 외도동주민센터에 처음 설치한  
뒤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18곳이  
운영 중이다. 1인 가구 증가와 맞벌  
이 가정 확대로 수요가 꾸준히 늘  
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엔 2만2723  
회의 이용 횟수를 기록했다.

이번 운영 기관 모집 대상은 신  
규 설치 2곳과 기존 외도동주민센  
터 1곳 등 3곳이다. 선정된 기관·단  
체에는 1곳당 820만원 이내에서 전  
액 보조금을 지원한다. 신규 신청  
시 무인택배함 설치 장소를 지정해  
야 한다.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 
고시·공고란 참고. 진선희기자

독자 제보 750-2232



설대목 맞은 제주시농협 농산물공장장 민족 고유 명절인 설명절을 앞둔 9일 제주시 일도2동 제주시농협 농산물공장장에서 설 강희만기자

## 설 연휴 14~18일 양지공원 특별 관리

### 제례실 폐쇄·추모 시간 단축… 근무인원 증원 배치

제주특별자치도가 설 연휴 기간  
양지공원 방문객 급증에 대비해  
제례실을 폐쇄하고 추모 시간을  
단축한다. 쾌적하고 원활한 추모  
환경을 만들기 위한 부득이한 조  
치라고 했다.

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  
관리 대책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  
지 시행한다. 이 기간 제례실 폐쇄  
를 감안해 개인별 추모 시간을 단  
축하고 추모객이 특정 시간대에 몰  
리지 않도록 사전 방문을 적극 유

도할 방침이다. 설 당일(17일)에는  
화장로 가동도 일시 중단한다.

이와 함께 진입 구간 교통 통제  
와 주차 안내, 고인 위치 안내, 근  
무 인력 증원 배치 등을 병행하기  
로 했다. 직접 방문이 어려운 추모  
객은 ‘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디지  
털 추모서비스’를 이용해 달라고  
했다.

진선희기자 sunny@ihalla.com

## 설 명절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

2026년 새해에도  
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 
MG 새마을금고가  
함께하겠습니다



언제나 그랬듯이  
앞으로도 늘  
함께하겠습니다.



“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”



이사장 박 성 길

상근이사: 한경종

이사: 김중현, 강상종, 고선심

김명찬, 강성극, 강영순

오원석, 양성우, 백창현

강혜령

감사: 원종환, 이경석

전무: 김현숙

올이유(ALL.E.U)가 있는 MG 산남새마을금고

## ‘장수의 별’ 노인성 관측 프로그램 운영

서귀포천문화관 10일부터 내달 15일까지

서귀포시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 
1100로에 위치한 서귀포천문화관

문화관에서 무병장수의 별 ‘노인성  
(Canopus) 관측’ 프로그램을 운

영한다고 9일 밝혔다.

노인성은 남반구 하늘에 있는 용  
골자리(Carina)에서 가장 밝은 별  
로, 예로부터 동아시아에서는 이  
별을 보면 무병장수와 행운을 얻는  
다는 전설이 전해져 ‘장수의 별’로  
불리워 왔다.

우리나라에서는 남쪽 지평선 가  
까이에서 짧은 시간 만 관측이 가능  
해 관측 날이도가 높은 별로 꿈히  
며, 관측 조건이 뛰어난 제주, 특히  
당일은 예약 불가이다. 위영석기자

##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추진

서귀포시, 오는 27일까지 2차 대상 모집

서귀포시는 실외에서 사육되는 반  
려견의 체계적인 개체수 관리를 위  
해 ‘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’  
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.

올해 ‘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  
원사업’에는 1억여원의 사업비가  
투입되며 지원대상은 읍·면·동 지  
역에서 실외견을 사육 중인 등록  
대상 동물(개)의 소유자로, 가구당  
1마리(5개월령 이상)에 한해 신청  
이 가능하다.

지원단가는 수술 전 검사와 후처

리비용을 포함해 암컷 40만원, 수  
컷 25만원이며 중·대형 잡종견에  
우선 지원된다.

서귀포시는 지난 1월 총 69마리  
를 1차 대상자로 선정 완료했고 3  
월 내 중성화수술(1차)을 완료할  
계획이다. 또 1차 사업에 참여하지  
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  
지 2차 사업대상자를 추가 모집할  
계획이며, 자세한 사항은 각 읍·  
면·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  
정이다. 위영석기자

## 도교육청, 2026 중학교 신입생 드림노트북 배부

11일부터 27일까지 순차 지급

제주 지역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  
로 ‘2026 드림노트북 지원(대여)사  
업’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.

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  
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.

김체현기자 hakch@ihalla.com



사랑으로 지은 집  
사랑으로 가득한 집

부영 사랑으로